

중국, 농약산업 대규모 구조조정

2015년까지 생산기업 30% 감축 ... 메이저 20사 육성 집중도 향상

중국이 농약기업들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 대기업을 집중 육성할 전망이다.

상해증권보(上海證券報)는 공업정보화부, 농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작성한 농업산업정책을 인용해 중국이 2015년까지 농약기업 수를 현재보다 30% 줄이고 상위 20대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50% 이상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.

2020년에는 상위 20대 농약기업의 매출액을 전체의 70%에 달하도록 할 방침이다.

농업산업정책은 또 농약기업들을 전문적인 산업단지나 화학공업지역에 집중시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했다.

중국은 세계 농약시장에서 중요한 생산 및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나 빠른 성장과정에서 심각한 중복투자, 과잉생산, 문란한 시장질서 등의 문제로 농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특단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.

2010년 상반기 증권시장 상장 농약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.55% 줄었고 매출총이익률도 낮아졌다.

왕즈린(王志霖) KGI증권 연구원은는 과잉경쟁에 따른 농약제품 가격하락이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농업산업정책을 계기로 산업집중도가 높아지고 산업기능 배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9/27>